

제1회 전북포럼 개최 준비 '온 힘'

전북자치도,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 점검 회의 "국내의 연사·외신기자 등 통해 긍정적 홍보" 강조 글로벌 농생명 사례 공유·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제1회 전북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고, 전북특별법에 담긴 주요 특례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오는 6월 25일 '제1회 전북포럼(2024 Jeonbuk State Forum, JSF)'을 개최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국제포럼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4차 자문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회의에는 권택은 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배민정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차장, 이하고 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등 자문위원과 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익산시, 전북연구원, 원광대학교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췄다.

회의는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의 포럼 준비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위원의

들의 자문과 제언이 이어졌으며, 참석자 전원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자문위원들은 전북포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외 연사, 외신기자, 대사관 관계자를 통하여 긍정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 초청된 저명한 연사들은 지속적인 학문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포럼 일정 외에 별도의 대학 강연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4차에 이르기까지 포럼 주제부터 연사자 선정 범위까지 전 분야에 걸쳐 조연을 아끼지 않았다.

제1회 전북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원광대학교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포럼의 구성은 본 행사 외에도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초청 연사,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리셉션과 외신기자 및 연사 가족 등이 함께하는 농생명산업 현장 방문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농생명산업 혁신으로 생명경제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국제포럼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4차 자문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한다.

포럼은 농생명산업 혁신의 대주제 아래 1부는 개회식과 특별·기조 연설로 진행되며, 2부에서는 주제별로 △세션1 농식품 Value Chain 혁신 △세션2 농생명산업 혁신체계 구축이 동시에 열린다.

전북자치도가 제일 잘하는 '농생명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를 발제자로 내세워 글로벌 농생명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구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전 참가자 등록도 가능하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자문회의에서 주신 귀중한 의견을 통해 전북포럼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전북을 대표하는 국제포럼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한번 더 고민하는 기회가 됐다"며, "해외 네트워크를 점차 확장시켜 전북포럼을 국제적 위상을 지니는 명품 포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기념촬영하는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에 앞서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오늘 채상병 특검법 표결 민주, 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국회 본회의서 가결 여부 주목... 내달 1일 '2차 범국민대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탈표 단속에도 특검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늘어나자 여당 흔들기를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다음달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범국민 2차 정의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하루 동안 채상병 특검 처리를 위한 여론 결집에 집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의 문제가 아

니다"라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여당 의원 5명이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추가로 12명을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통령이 재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206명 의원(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참석할 경우 17표의 이탈표를 얻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뉴시스

21대 여당 현역 의원 중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은 약 58명인데 무기명 투표라는 특성상 이들에게서 추가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혜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를 기권하거나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사실상 가결표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갖는다"라며 "민주당도 정권이 (본회의에) 나올 수 있도록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제2차 범국민대회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민약 특검법이 부결되면 규탄 대회가 되는 것이고 가결되면 대국민 보호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북자치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2023년도 사업) 상위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위평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자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진행했으며, 지난 16일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등급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자체평가 5개 영역에서 최고점을 부여받았으며, 자체평가를 올바르게 이행했다고 평가받았다. 특히, 자체평가위원회 구성과 각 사업별 성격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총괄위원회 운영이 적절한 점, 우수 성과와 진행률을 나타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도의원, 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문승우 의원(군산)이 제7회 'ESM대한민국 소비자평가 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ESM대한민국 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우수 소비자평가를 받은 인물, 기관, 단체 등에 시상했다.

문 의원은 3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의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에서 신망받는 정치인으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제11대 도의원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12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안전, 문화,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정책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했다. 또한, 12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해 의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최형열 도의원, 한국효도회 효행대상 공로봉사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더불어민주당)이 (사)한국효도회가 주관한 '제30회 대한민국 효행대상 시상식'에서 공로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김철철 한국효도회 전북지회 장으로부터 상을 전수받았다.

(사)한국효도회 전북도지부 김철철 지부장은 "최형열 의원은 지난 8대 도의원 시절부터 해마다 명절에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형열 도의원은 12대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단독 출마했다. /이만호 기자

"초남이성지, 지역의 고유한 종교문화유산"

윤수봉 전북자치도의원 주관 세미나 개최 종교문화적 가치·지속가능 활용방안 모색

초남이성지의 종교문화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예원대 문운걸 교수는 초남이성지가 지난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언급하면서, 초남이성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전 수교구를 비롯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며, 성지조성 단계부터 부가까지 창출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윤수봉 의원은 "종교문화유산을 신자들만의 전유물로 볼 게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로 봐야 한다"면서 "초남이성지가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 문화유산인 만큼 국가사적 지정부터 물리적 환경정비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북자치도가 천주교와 협업하고 보존 및 활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몽골 고비알타이주 식품농업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역량강화 초청연수'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스마트농업 역량강화 초청연수 과정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몽골 스마트농업 활성화 정책 수립 역량강화 지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몽골 공무원 대상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 역량강화 초청연수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몽골 고비알타이주 식품농업부 공무원 대상 '스마트농업 역량강화 초청연수' 과정을 지난 26일부터 6월 4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연수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진흥원은 2022년부터 KOICA와 '몽골 고비알타이주 농업 기술 선진화(스마트농업) 및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연수사업은 우리 정부의 해외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전문기술과 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 정부의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연수는 3개년 과정 중 마지막 과정인 1차연도와 2차연도 연수를 통해 학습한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적 이론과 분야별(원예, 과수, 축산)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방안 등을 토대로, 몽골 고비알타이 주의 스마트 농업기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업·몽골 내·외 협력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특히, 한국의 우수 농기계를 직접 경험하는 IS 엠트론 농기계 견학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청년·기업·몽골 내·외 협력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김대식 원장은 "이번 연수 과정은 3년간 진행된 연수 과정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몽골 고비알타이주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진흥원은 이러한 개도국 대상 글로벌 연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농생명 분야의 강점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